

‘1조 투자’ 엠코 폐수 문제 전남광주-장성 함께 푼다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 업무협약 체결
장성 공공폐수처리장 연계 처리 협력
향후 인허가·공사·운영 등 전반 지원
안도걸 위원장 등도 사업장 찾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장성군이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의 반도체 추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폐수처리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성군 공공폐수처리장과 연계해 추가 증설에 필요한 폐수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장성군은 지난 18일 무안청사에서 엠코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폐수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과 김한중 장성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엠코의 대규모 투자에 맞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기반시설을 적기에 마련하고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엠코는 지난 9월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북구 첨단지구 광주공장에 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추가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공정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단계 증설을 위한 폐수처리 방안으로 광주제1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것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18일 무안청사 접견실에서 김한중 장성군수와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 투자 사업에 따른 폐수처리 문제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한 ‘반도체 폐수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으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사실상 처리 한계에 도달하면서 추가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특별시는 장성군 공공폐수처리장과 연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성군이 이를 수용하면서 협약이 이뤄졌다.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자체 간 행정 협력을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기반시설 문제를 공동

으로 해결하는 사례라는 게 특별시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공장 가동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인허가부터 시설공사,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전 과정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반도체 투자를 계기로 연관 기업 유치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형배 시장은 “안정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과 지역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유관기관도 엠코의 투자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위원장과 정진욱·조인철·전진숙 국회의원, 신수정 북구청장, 지역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엠코코리아 광주사업장을 찾아 전역·용수·도로 등 공장 증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과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향후 당장 협의와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가며 엠코의 투자와 공장 증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변은진기자

김승원 자진 사퇴…8·30 개각 두 번째 낙마

‘현역 불패’ 신화 깨져…靑, 후속인선 착수
법무후보 박주민·박균택·이건태 등 거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입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6개 부처에 대한 이 대통령의 8·30 개각 발표 후 20일 만이며,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13일 사퇴)에 이어 두 번째 2기 개각 낙마자다.

김 후보자는 이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

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인 김 후보자의 낙마는 이른바 현역 불패가 깨진 세 번째 사례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1면 ‘법정 간 전남권 국립의대’서 계속

후보 대학 선정 전 동·서부권 정치권은 공정한 심사를 전제로 결과를 수용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결과발표 이후 갈등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별시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논란이 소용과 단식농성으로까지 번지면서 통합 이후 첫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립의대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임도 커지고 있다.

지역 의료현장에서는 이제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공방에서 벗어나 국립의대 설립의 본래 취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기호 강진의료원장은 “동·서부권 모두 국립의대를 유치해야 할 나름의 명분이 있다”며

세를 멈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 사퇴에 대해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 인선 등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후임자로는 정치권에서는 지난 8·30 개각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 등 이름이 다시 나온다. /김진수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73호

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재공고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임원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4명
-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보수 : 공단 관련 규정에 따름
- 응모자격 : 관련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다음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분	자격요건
비상임이사	·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법률전문가 ·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업경영, 재무시설 관리 등 공단사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 · 위 각조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21. (월) ~ 10. 6. (화) 18:00
※ 마감일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시 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 yc2@bukgusisulor.kr
- (방문접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삼소로 408, 3층 경영지원팀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서식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 (https://gbfmc.or.kr/)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jet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광주30분 국도변 공장 반값매매]

- 곡성을 국도변 계획관리 4,000평 공장3동, 사무동, 사택동 등 5개동/지붕태양광설치 급매22억(은행융자16억) 현금6억 인수가능
- *** 은행이자는 태양광에서 충당하고 남습니다 무월해도 돈이되는 부동산 매물입니다.

[아파트 급매물]

- 산수동568-1 두암타운 대단지 로얄층47평 방4 욕실2 남향 앞뒤베란다 [급]급처분 2억7,000
- 유동 모텔(허가권있음)상업지56평 5층건물210평 객실20개 모텔, 원룸, 사옥, 사무실, 생숙등 최적 [급]급매 2억9,00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임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
062-228-0990, 010-4601-1390